

화 5월 22일(월)

노 5월 23일(화)

수 5월 24일(수)

목 5월 25일(목)

국내 곳곳 피켓팅, 횡단보도 앞 게릴라 피로연스, 자로잡기/눈물 배부

- 장자는 시자의 코를 찌를 뻔하다
: 코를 찌른 목집네가 감미물로 찾아옵니다~
- 국내 곳곳 숨어있는 성폭력의 흔적 찾기
- 강의 중 언어성폭력 율동전 티셔츠가 : 낮 공전다공장
- 국내 반성폭력, 아내는 말할 수 없다: 강담회 :
→ 늦은 8시 반, 한국성폭력상담소 권주희 선생님과 함께

- 여성의 몸 바로 알고 잘 돌보기
: 여성 관련 의료 상담(에이산부인과 고경심원장 ~ 정정원)
- 여성주의 디오카드 : 정정원
- 평화남성연: 공전다공장
- 여자친구처럼 꼬마미 꼬마미 : 공전다공장
-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 : 단편영화 상영회 (영원 90)
→ 늦은 8시 30분

- (여성권 찬양) → 늦은 8시 반, 노천극장
- 국내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 상영
- 어린이제 기획자들이 만든 강의 중 언어성폭력 존극
- 여성적,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공연

제 13 회 여성현실제



스물한번째 총여학생회 발칙해서 더 특별한 내/인/연



2006 여성현실제

그녀의

일상 다 반사!!

5월 22일(월) - 25일(목)

"성관관대 중"



제 13회 여성현실제

그녀의 일상 다 반사!!

기조글 03

제 13회 여성현실제 <그녀의 일상 다 반사!!> 프로그램 소개 04

喜 학내 다양한 여성의 모습 이야기하기
어·대·생, 그녀에 대한 좋은 사과의 안경을 벗자 07
학내 여성들의 목소리
그녀들의 동아학생회를 바라보는 5000가지 프리즘 09
총여, 뭐하는대지? 12

강의 중 언어 성폭력 그녀의 수업 18
학내 공간 다시보기 그녀들에겐 너무 아박한 성균관 30

愛 나의 몸 사랑하기 내 몸 사랑 프로젝트 35
나와 연애하기 사랑해 닐래 ^^ 38
남성과 사랑하기 남성과의 연애,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하여 41
여성과 사랑하기 단편 영화 상영전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 47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촛극 50
축제를 마무리하여... 다들 사랑해 55

樂

그녀의
일상 다방사!!

그녀의 하루는 늘 피곤합니다.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가파른 수선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가려야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날이면 피아나 가방으로 가리며 올라가느라 더욱 더 신경이 쓰입니다. 힘들게 올라간 강의실에서 강의 중 신경 쓰이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수업 후 동아리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신경 쓰이는 남자 선배의 말과 행동들, 순간순간 당황스러운 남자친구와의 뽀뽀한 관계들.

그녀들의 모습과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일상에서 요구되어지고, 일어나는 난감한 상황들은 그녀들 모두에게 같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또 다시 돌아온 화창한 5월의 봄. 2006 여성 현실제 - 그녀의 일상 다방사에서는 대학생이기 전에 '여대생'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 학내 문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대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을 상정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외모를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며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애를 즐길 줄 알아야 할 것 같은 전형적인 상이 따라 다닙니다. 그런 학내에 이런 이미지의 여대생만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고 인정하는 여대생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내에 그녀들의 수많은 모습과 생각을 여성주의로 해석하고 바라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들 상이한 모습이지만 그녀들의 일상을 가장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06 여성 현실제 - 그녀의 일상 다방사는 사회와 타인의 모습에 비추어 내 자신을 감추고,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녀들과 함께 합니다. 학내에서 그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을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 아래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펼쳐지는 그녀들의 일상에 반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소소하지만 힘이 되어주는
그녀들의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喜怒哀樂 '히'

2006 여성현실제

- 학내 다양한 여성의 모습 이야기하기
 - 여·대·생, 그녀에 대한 좁은 시야의 안경을 벗자!
 - 총여, 뭐하는대지?
 - 학내 여성들의 목소리
- 그녀들의 총여학생회를 바라보는 5,000가지 프리즘

학내 다양한 여성의 모습 이야기하기

여·대·생, 그녀에 대한 좁은 시야의 안경을 벗자!

안녕? 상대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아 ^^

잠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지금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호젓해져버린 다양한 모습의 대학 내 여성들(여대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이번 2006 여성현실제의 주제가 '학내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과 목소리'를 여성주의로 바라보기잖아. 무의식중에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대학 내 여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일거야.

성균관대학교의 학부 입학 규정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입학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 다시 말해서 성균관대학교 학부생들의 연령이나 결혼여부, 장애, 성적 지향성 등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차 한 번 떠올려볼까? 여대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니? 혹시 이미지 속의 그녀는 스무살을 갓 넘긴 미혼의 여성이고 아직 부모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어느 남성과 연애중이거나 연애를 꿈꾸고 있을 거고,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아직 없는 비혼연자이자 비장애인이지는 않아? 어쨌든 그렇게 잘 맞추는 지 놀라워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네. 만약

그렇다면 조금 아쉬

울 것 같아. 앞서 나열한

그녀의 이미지들은 사실 '여대생'이라는 집단에 포함되는

수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단일하게 만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요소들이거든. (자넨도 머릿속에 그녀의 '정순현' 긴 생머리와 상큼한 치미가 그려진다면 어서 내 말에 집중하도록 해봐.) 스스로를 '여대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또한

위에 나열된 요소에 전부 들어맞는 것은 아니야. '여대생'이라고 하는 단순화된 말로 묶기엔 다양성이 제각각 넘쳐나는 집단을 예뻐 모아놓고 하나의 모습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것 참 억지스럽지 않아?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잊게 되는 것 잊음으로써 불리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를 한번 둘러보자. 딱아시실, 수유실, 여성전용흡연실, 여성장애인용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는 영·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의 여학생, 여성흡연에 대한 금지 않은 시선의 부담을 안고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여학생, 남녀공용화장실을 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여학생들이 마음 편히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무





'여대생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녀들을 소외시키고
불편함을 겪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지

자기 빛깔만큼이나 다양한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가진
친구들의 경우는 어떨까?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과 고정
관념은 치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수업에서조차
비하 발언과 혐오 발언을 들어야 하는 현실. 크고 작은 학생
자치모임이나 활동에서도 목격적인 경험을 겪어야 하는 상
황은 분명 아름답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과는 크나큰 거리
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 '여대생'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학교 안에 기본적인 화장품을 비
차해놓고 판매하거나 피부더 톤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 우리가 만약 '여대생'들은 취업을 하지 않
을 집단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취업관련 행사들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운동 남학
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테고, 우리가 만약 '여대생'들
이 겪는 성리통이나 어남공용의 공간을 이용하다가 느끼
는 불편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 학내 여
학생후계들은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을 거야. 다시 말해

서 우리가 '여대생'이라 불리는 그녀들을 좁은 시야의 안경
너머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바라보고, 정작 '여대생'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녀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학교 안의 여러 편의시설들이나, 제도, 프로그램 같은 것
들이 그녀에게 유익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조금은 전달이 됐나?
스스로를 '여성 대학생'으로 정체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분위기나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밀려서 진짜 자신의
현실 욕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물어봤으면 해. 그리고 '여대생은 이래야 한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녀들을 소외시키고 불편함을 겪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지. 물론 공고한 사회적 문
화 속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조금만 눈을 둘러보면 얼마나 다양한 모
습들의 여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제각각의 현실을 만들어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강의실에서 출산을 앞둔 여
학생 혹은 식구들 부양을 책임지는 여학생을 보는 것이 결
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했. 그리고 덧붙여 조
금의 힘을 더 알려주자면 그렇게 시선돌리기를 하는 대에
'여성주의'가 썩 괜찮은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
어때, 이정도면 충분히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눌 가치
가 있지?

이번 여성한실제가 많은 여자친구들에게 자신을 더 또렷하
게 마주하고, 다른 여자친구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마- 그럼 이만 마칠게.

by_ 더 이상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총여와 함께 매일매일 부지런히 피곤한 '공나물'

그녀들의 총여학생회를 바라보는 5,000가지 프리즘

궁금해요^^

학 내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그녀들만큼이나 총여학생회를 바라보는 그녀들의 시각
도 다양할 것 같아요.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총여학생회, 과연 그녀들이 들려
주는 총여학생회는 어떤 모습일지, 총여학생회는 그녀들과 얼마만큼 얘기하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고슴과 산수가 직접 나서 보았어요.

그래서 물어 보았어요, 앙~^^

생생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펜과 노트를 들고 그녀들을 찾아 학
내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어요. 다행히도 화창한 날씨 덕분에 그녀들을 만나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았고요, 빈 강의실에서 홀로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녀들, 도서관 앞 들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도란도란 둘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녀들, 세미나 실
에서 목소리 높여가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그녀들, 그리고 학생회관 밖에서 늦은 시간
까지 맘을 풀리며 춤과 노래를 연습하던 그녀들까지 다양한 그녀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꺼려 할 것 같다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그녀들
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편하게 우리와 같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마치 질문을 하러간 우리
가 그녀들의 얘기를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려고 직접 찾
아온 것 같다는 착각도 들 정도였단니까요. 그럼 그녀들의 이야기 한 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니 이랬어요^^

기대했던 만큼이나 총여학생회에 대한 그녀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함께 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어요.

① 총여학생회의 강한 이미지를 줄여 주세요!

그녀들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수의 여학생에게 떠오르는 총여학생회의 이미지는 바로 '강.하.다'는 거였어요. 총여학생회를 학내 성폭력사건의 해결기구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주위에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운 이미지, 싸우고 투쟁하는 곳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색스나 성폭력등과 같이 선정적인 문제 밖에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도 했고요. 또 그 것과 더불어서 올 해 학기 초 성폭력사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었는데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좀 더 많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의 유연한 태도가 아쉽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한 가지 덧붙여 '총여학생회 언니들은 하지만 입고 다닐 거 같아요.' 하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②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소수를 위해서라도 총여학생회는 꼭 있어야 해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동의하였어요. 그렇지만 총여학생회가 모든 여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소수의 꼭 필요한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총여학생회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③ 같이 하고는 싶은데 망설여져요

총여학생회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 대자보나 각종 소식지들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안 되서 아니면 주위에서 총여학생회를 안 좋게 보는 주위의 시선들 때문에 부담돼서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학생으로써 안쓰럽고 미안할 때가 많은데 속으로는 용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학우들도 있었어요.

④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들이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점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그녀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여학생 휴게실 관리 문제라든지, 학 내에서 파는 생리대 가격 문제, 또 강의실 언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학내의 여러 가지 성 폭력적 문화들, 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생리 공결제 시행 등의 제도적인 문제 등을 총여학생회가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있었어요. 특히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에서의 성 차별적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노력을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 준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총여'의 생각은 이래요 ^.^

그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눈 결과 많은 수의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변에 팽배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망담아서 안 좋게 보는 거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주위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인지, 그리고 자신은 남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고 싶은데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여학생들 편에서만 얘기 하는 것 같고, 남학생들한테는 공격만 하는 것 같으니까 왠지 꺼려지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깐 점점 더 총여학생회는 멀게만 느껴지고 나랑은 상관없는 곳이 되는 건 아닌지.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이야기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실래요? 총여가 그러는 세상도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편 가르고 싸우는 세상이 아닌 함께 어울려 잘 지내는 그런 세상이지요. 하지만 그 것은 그저 길으로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즉,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편하게 잘 지내는 세상이에요.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에서 처럼 남학생 휴게실은 따로 있는데 여학생 휴게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리고 학 내에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총여도 그런 여학생 휴게실 같은 존재이

고 싶어요. 여러분이 언제든 쉽게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아닌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총여가 되고 싶어요. 함께 웃고, 떠들고, 화내면서 그래서 나중엔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함께해요~^^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에서 여러 가지 여성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 생리대 만들기라든지, 여성주의와 관련한 책 대여 및 여학생들끼리 맘 놓고 놀 수 있도록 고무줄, 훌라우프, 배드민턴 채 등 각종 운동기구 대여, 여성주의 세미나, 방중 마실 등등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하고 싶은 학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놀러와요.^^ by. 산수





WOMEN

총여, 뭐하는데지?

이번 여성 현실제의 주제는 그녀의 일상다반사야, 그녀의 일상다반사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총여'에서 내건 주제치고는 너무 평범한가? 사실 이 글을 쓰는 나도 총여에 말을 들어 놓은 건 별로 오래 되지 않았어. 3월부터 여성주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총여학생회랑 처음 인사했으니까 이제 겨우 2달 남짓 된거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아직까지 총여학생회와 그다지 친밀한 관계는 아니야. 같이 활동을 해온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해온 것도 아니니까. 그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몇몇과 친분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여현제 기획단이 되었나구? 그건 바로 그런 지금의 내 위치가 성균관대 여학우들과 총여 양 쪽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이 글에서 여러분들과 총여학생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아! 참고로 총여학생회 세미나 전까지 난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물론 여성주의라는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뭐 그건 그냥 내가 여자니까 갖는 최소한의 관심 정도였지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만큼의 가치를 두지는 않았거든. 지금 당장 할 일도 많은데 제쳐두고 내가 여성주의 운동을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엇보다 귀찮아서. 지금도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편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열 올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구. 레포트 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말이야. 고백하건데 처음 여성주의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그 때 별다른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주제로 돌아가 보자.

2달 정도 총여방에 들락날락 하면서 느낀 건 '여기 생각보다 편안한 곳인데?' 라는 거였어.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 나름의 사업을 펼치지만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나도 별 부담감 없이 거기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 같이 세미나 하는 학우들이랑 수다 떨고 총여에서 하는 사업 한 번 켜기웃거리고... 그래도 자연스럽달까... 자유롭달까... 그런 느낌이었어. 한창 학교가 성폭력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때였고 총여학생회 활동하는 친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는데도 말이야.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이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총여의 활동모습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총여학생회가 페미니즘 정신으로 톨툴 뭉친 몇몇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지. 총여학생회가 교내 성폭력 근절을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이상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그것이 총여학생회 활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하고.

그저 그런 활동들이 가장 눈에 띄고 화제가 되기에 총여학생회 하면 성폭력 사건과 학우들이 대략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실명공개 대처보만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과격한 총여'에 대한 이미지를 낳는 것이겠지...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교내 여학우들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총여에 대한 이미지 하면 대다수가 '과격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사실 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총여 세미나만 한다고 해도 '어~~ 조심해야겠네... 무섭다... 신고당할까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던걸?.. 물론 농담이 섞인 거지만





그래도 총여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 정도는 충분히 알 만 하지. 하지만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남학우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가 아니라 인터뷰 하면서 여학우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 총여가 남학우들에게 너무 적대적이어서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너무 투쟁적이라는 의견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선배든 동기든 많은 남학우들과 친해지는데 총여가 남학우들에게 너무 적대적이다 보니 동참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이었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지만 막상 반박하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 나도 어느 정도 공감 가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계속 껌껌한 기분... 어딘가 핀트가 어긋난 느낌이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떠올렸어. 그래, 남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총여에 대한 적대감이 여학우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렇게 총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성 여학우들의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남학우들의 눈을 통해서 총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총여학생회를 봐주었으면 해.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총여학생회에 직접 물어주었으면 해.

앞서도 말했듯이 총여학생회는 페미니스트들의 작전본부가 아니야.

총여학생회니까 우리학교 여학우들은 당연히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이야.

총여학생회에 찾아온다고 페미니스트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주의 운동에 당장 뛰어들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여성주의고 뭐고 귀찮고 관심은 있더라도 빠져서 거기까진 못하겠어. 상관없어. 그래도 총여로 와. 왜? 성균관대 여학우니까. 그러니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를 써먹어야지 않겠어? 연애하면서 속상한 얘기를, 걱정거리를, 짜증나는 일들, 이런걸 얘기할 수 있는 곳도 총여학생회야. 개인적인 문제라 걸린다구? 아니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여학우들이 모여 있는 곳도 총여학생회야.

총여학생회가 남성들에게 너무 적대적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볼까? 솔직히 총여학생회가 모든 남성들에게 적대적일 이유가 없어. 당연하지. 왜 그런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겠어? 이것도 아마 '과격'한 총여 이미지가 한

몫 한 것 같은데..

앞서도 나왔듯이 '총여'라면 성폭력 사건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지? 거기에서 총여는 당연히 피해자인 여학우와 가해자인 남성과 사이에서 여학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피해자인 여학우의 입장에 서는 것이지 남자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페미니즘적 이상을 위해서 남학우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총여학생회의 원칙이거든. 당연히 피해자가 알리길 원하지 않으면 총여학생회는 대외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지. 그저 조금이라도 피해 여학우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길 바라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사실 총여학생회가 사법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소를 하든 민사소송을 걸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대체로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그건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니깐. 그래서 학내에서만이라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저항에 도움을 주려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총여의 대응방식일 뿐, 모든 남성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가해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 않겠어?

그리고 총여학생회가 왜 소수의 여학우들만을 위한, 그녀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어. 아마도 총여학생회는 성차별에 예민한 몇몇을 위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겠지. 많은 여학우들이 지금까지 딱히 어떤 성폭력적인 경험을 있었거나 성차별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어. 물론 그것은 개인이 받아들이기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경험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것 아닌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맞는 말이야. 어느 여학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총여 활동을 하는 사람은 화기에애한 술자리 분위기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 한잔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질고 넘어갈 것 같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 좋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문제 삼으면서 분위기를 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총여에서 문제 삼을만한 분위기라면 아마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다른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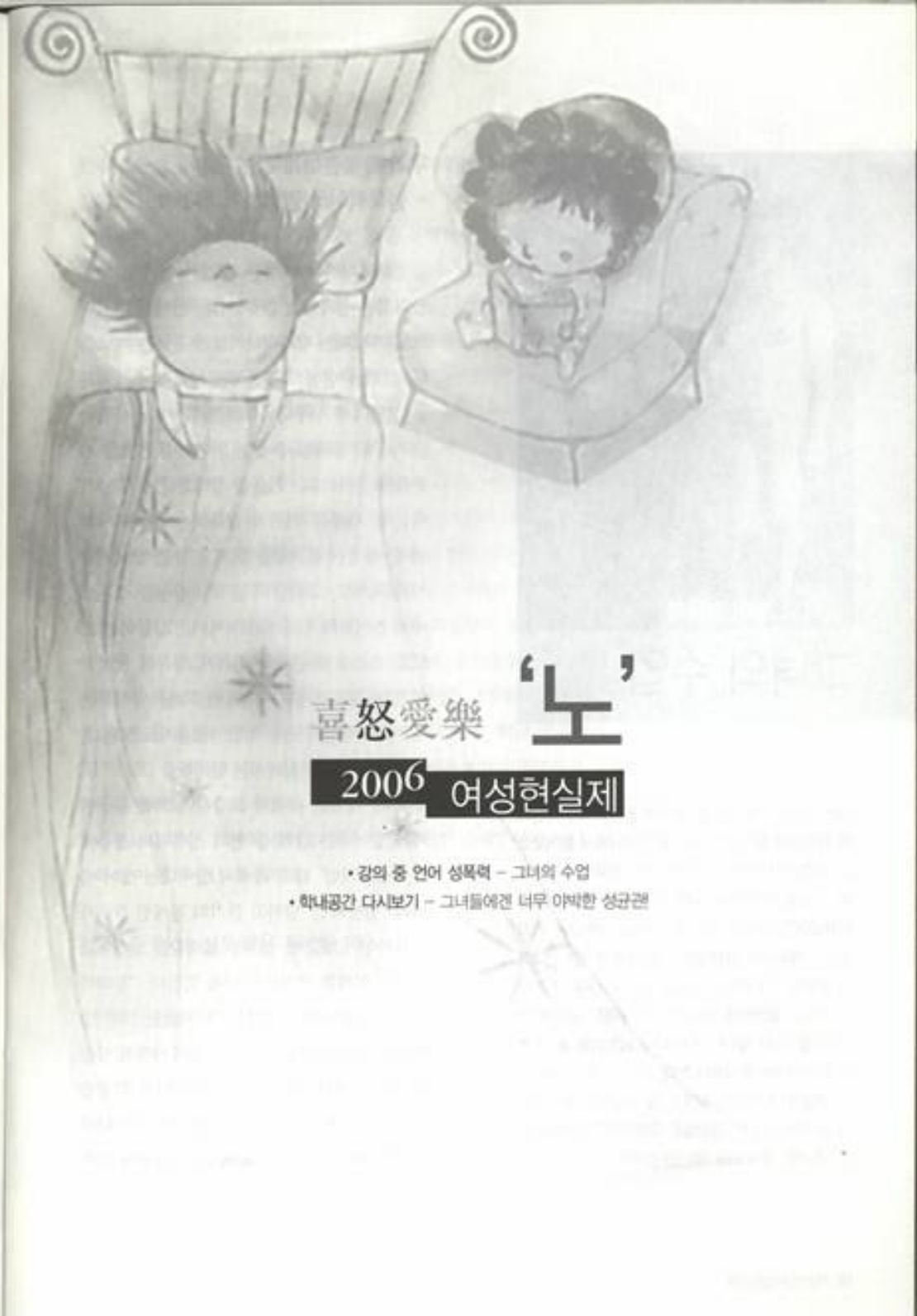
구도 분명 있지 않을까? 몇 명 안되는 총여학생회가 자기들끼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힘들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해. 사실 불쾌함과 아픔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알파한 것이거든. 총여학생회는 불쾌함을 느끼는 그런 소수의 감수성을 지지하는 것이야. 그렇다고 그것을 기본종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수가 틀렸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여학우들이 기본종계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 총여학생회가 만약 그런 소수의 감수성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민한 개인 1명에서 끝날 일은 아니거든. 그러한 개인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이 분명하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불쾌한 한쪽이 계속 속상해하는 것보다 다른 한쪽이 고치는 편이 옳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 총여학생회는 활동하고 있어. 물론 이걸 총여학생회가 지금 추진 중인 강의실 내 언어 성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겠지. 총여학생회는 피해를 받았지만 주목받는 게 싫어서 또는 혼자서는 자신이 없는 여학우들의 얼굴이 되려고 하고 있어. 총여학생회가 나서지만 사실 그 뒤에 앞으로 나서기 꺼려하는 여학우들이 있는거라는 걸 생각해주시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런 것 말고도 역시 총여는 총여학생 전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인터뷰 중에 많은 여학우들이 여학생 휴게실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했어.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총여학생회는 뭘도 할 수가 없네. 여학생 휴게실은 총여학생회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학교측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보니 총여학생회의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되지 않았어. 총여학생회에서는 그곳을 좀 더 따뜻하고 서로서로 어울릴 수 있는 카페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거든. 우리의 일상다반사에 대해서 부담없이 와서 얘기를 나누는 곳으로...

오늘은 학교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아~ 이런건 재밌더라~ 아~ 이런건 짜증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어울리는 곳으로, 그런 것이 바로 총여학생회가 하고 싶은 거야. 불특정 다수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함께 말이야...

우리 같이하지 않을까?

by_ 고승



喜怒愛樂 ‘노’

2006 여성현실제

• 강의 중 언어 성폭력 - 그녀의 수업

• 학내공간 다시보기 - 그녀들에게 너무 아팠던 성균관



강의 중 언어 성폭력

그녀의 수업

이번 학기는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었노라고 다짐하며 강의실에 들어갔다. 곧이어 교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수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첫시간부터 하는 말씀... "요즘 여학생들이 너무 실체 남학생들 긴장 좀 해야겠어." "여자는 시집 잘 가려고 대학교는 거지머..." "여들들어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말이지..." 이런식의 말들을 많이 하신다. 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학생들 중 몇몇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는다. 이런 수업 들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인지 모르는 걸 표현하지 못하겠는 데 불쾌한 나의 이 감정들은 무엇이지? 무시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 성폭력이라 명명하기까지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강간과 같은 신체적 물리적인 성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언어적 정신적인 성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외현적인 명백한 기준을 요구하므로- 기준을 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언어적 성폭력은 부차화되기 쉽다.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고 불편해지는 당사자조차도, 그러한 주관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언어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스스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이냐 여기는 경우가 많다.(어쩌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심신이 편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지금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특히, 대학교 내에서 교강사에 의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강의 중 언어 성폭력의 경우에는, '상호적인'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말하고 듣기의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더욱 힘들다. '동의하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겨왔던 그런 발언들은 대학교 교수의 발언이라는 사회적 힘을 가지게 되면서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의식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으며,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건 때문에 그저

한귀로 듣고 흘리는 수동적인 입장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학교 강의실의 현실인 것 같다.

분명히 뭔가 불쾌하고 짜증난 말인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언어로 풀어내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한다. 이 말들이 과연 성폭력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일까, 나만 예민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지적했다가 괜히 학점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음 뿐인데 지적하면 괜히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쾌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인데 그런 자신의 불쾌감에 근거를 대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고민이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런 저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감히' 교수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적하는 일까지는 엄두도 내질 못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 중 언어 성폭력 문제는 더욱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학생들은 이런 발언들에 무기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수업을 하는 교수들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그것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 이제 우리는, 강의실에서, 학교 곳곳에서, 우리를 (성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언어적 성폭력이라 명명하고 그 동안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더욱 외면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감수성을堂堂히 드러내고자 한다. 그녀의 강의실이 더 이상 불편한 가시방석이 아닌,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강의 중 언어 성폭력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강의 중 언어 성폭력은, 강의실에서 강의 도중, 교수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 반여성적 발언, 또는 여성을 배제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직까지도) 교수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래서 (안그래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더욱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분위기 속에, 여학생들은 쉽게 배

제되거나 주변적인 존재로 치부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는 이런 여성 배제적인 발언 역시 언어 성폭력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일상적인 발언들에서부터 언어 성폭력의 심각성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너무나 당연해서, 무엇이 남성 중심적인 것인지조차 구분 할수 없게 되어 버린 사회에서, 강의 도중 교수의 '생각없이' 지나치듯 하는 발언에 왜 일부의 여학우들이 불쾌해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학우들도 많다. 어떤 말에 대해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수가 느낀 불쾌감과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학우들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교수들의 그러한 발언들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행과 행동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향한 멸시나 조롱, 욕설, 헐뜯음 등과 같은 예 들어 비교적 확연하게 폭력의 형태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여성비하적, 배제적, 차별적 언어들은 특정 성을 불쾌하게 하고 멸시하는 언어적 폭력으로도 볼 수 있으며,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함부로 이야기될 것이 아닌 것이다. 나아가, 폭력의 형태로써의 발언들에 대해서만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말은 내뱉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의식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방적으로 '듣고 있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강의 도중의 발언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의식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말을 내뱉었다면,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가부장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다수가 길들여진 방향으로 아주 쉽게,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그럴싸한 근거로 아주 교묘히 우리의 사고와 인식 체계에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은 일상적인 '말'에 의해 정당화되며, 그것이 마치 여성의 숙명인냥 이야기된다. 여자로 태어난 이상 감수하며 살아라, 따위의 말들과 함께,

특히 왜 '교수'의 말이 문제시 되는가?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말'들은 특히, 강의실 내에서 교강사에 의해 이야기될 때 더욱 강한 힘을 갖는다. 교수는 강당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말하기와 듣기의 관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반론을 펼치기 어렵다. 또한, 교수의 발언 중 문제시 되는 성폭력 발언들은 대부분 수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한 흥밋거리나 예시로써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와 같은 비난이 빗발치는 것이다. 단지 농담에 불과하다면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말인 것을.) 우리는 그러한 부차적인 말들이 더욱 일방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수업의 내용과 상관있는 것이 아닌 부차적인 말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수업의 흐름을 방해해버린 예민한 학생이 될 수도 있을것이라는(실제로 그렇게 몰아가곤 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걱정이,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말들이 교수에 의해 발언되었을 때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교수의 말이 갖는 사회적 권위 때문이다. 교수라고 해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부분에까지, 특히 여성주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까지 명확히 안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교수의 말은 어느 분야이건 간에 힘을 가지며, "설마 교수가..."라는 생각들이 교수의 말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 마치 그들의 말은 비판의 여지가 없는 진리인 마냥 말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이야기되는 '교수'의 말은 언어 성폭력이라 규정하기 더욱 어려웠으며, 문제의식조차 갖기 힘들었던 것이다.

대학 내 강의실 언어 성폭력의 현주소

그러나 우리의 강의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언어 성폭력들이 난무한다. 누구나 동등하고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조차 여학우들은 설 곳이 없다. 여학우들을 불편하게 해왔던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넘어가곤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놀랄 것이다. (어쩌면, 이런 발언이 성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하는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하우는 앞 페이지에서 성폭력의 규정에 대해 다시 읽어보길 바라며, 폭력적인 발언들에 폭력적이라 반응하지 못해왔던 본인의 감수성의 무덤에 대해 재고해 보길 바란다. 물론, 모두 성폭력적인 것이라고 똑같이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고 옳은 방법이라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반기를 드는 행동들에 대해 적어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는,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할 공통의 부분인것 같다)

● 여성에 대한, 외모 중심적인 발언

수업시간 중, 지나치듯 이야기되곤 하는 "뭐든, 예쁘면 용서한다"는 말은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는 가치관과, 철저히 남성들의 시각에서 여성의 외모를 서열화 하여 평가하는 (성)폭력적인 발언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외모중심적인 발언들은 "○○○연애인이 그렇게 이쁘는데, 그런 여자있으면 바로 장가가겠다"와 같은, 수업 중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넌 얼굴이 예쁘니까 난작값이 비싸겠다"와 같은 노골적인 수준의 말에 이르기까지, 강의실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된다. 이미 너무나도 외모중심적인

사회인 것은 짜증스럽게도 사실이나, 강의실에서조차 강의의 흐름을 타고 이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교수조차도 인정한 당연한 말'이라고 인식되어, 그러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의 가치관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에 일조한다. "여학생은 치마입고 발표해라"와 같은 발언들은, 이미 학생이라는 범주보다 여성이라는 범주로 우선 고려한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남자교수의 발언에, 여학생은 선생과 제자간의 느낌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라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느낌, 남자 교수와는 제자의 관계로 고려될 수 없을것 같은 느낌을 조장하는 그러한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게 한다.



● 여성의 분야를 결혼, 가사, 출산, 육아의 일에만 국한시키는 발언

우리 사회는 나이가 적당히 찬 여성이 '시집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여자는 시집가면 땡"이라는 발언이나 "제 때 시집가지 못한 여성은 참"이라는 발언은, 여성의 인생의 종착역은 결혼임을 전제한 말들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시집이나 잘 가라"와 같은 말들은, 같은 수업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여학생들을 학업의 공간에서 배제하는 말이다. 또한 "나중에 애기 얼마 될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여학생들이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시집 잘 가고 애 잘 키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와는 상관없이- 여학생들의 수업동기와 목표는 대학교 강의실에서조차 타자화된다.

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의 위기라는 요즘, 왜 출산율이 저하되었는지에 관심이 없고 단지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문제로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위기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은, 원인조차 모른 채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대듯 여성들에게 그저 낳으라고!만 말을 한다. 이미 강의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요즘 여자들은 이기적이야"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말들은, 강의실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의 화살이 된다. 교수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출산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여학생들을 미래에 출산할 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여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성차별적 판단의 밑바탕을 형성한다. 여학생은 반드시 결혼과 가사, 출산, 양육의 문제로만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가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학문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여학생은 진로와 학문의 영역과는 이어질 수 없는, 그저 "시집가면 땡"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여성들은 부차적인 존재가 되며, 결혼과 출산이라는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여성상을 요구당한다.

● 남성만을 청자로 가정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발언

강의자들은 남학생들, 특히 이미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만이 공감할 수 있

는 군대 이야기를 굳이 수업시간에 꺼낸다. 예를 들면, 고학년 남학생에게 꼭 '군대 갔다 왔냐고 물은 후, 그 경험을 특별히 대단한 것처럼 추켜세운다든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청자(혹은 자신의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군대에 갔다 왔거나, 갈 수 있는 남학생들만이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굳이 만들어 내어 여학생들을 수업으로부터 소외시킨다. 또 여학생에게는 여학생이라고 하면서, 남학생은 '학생'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과거에 여성을 교육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해 왔다면, 이제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통해 여성을 강의실로부터 배제시킨다. 이것은 단순히 남학생들이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남성적 분위기의 차원을 넘어, 의도적인 배제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강의자들은 은연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대상이 오직 남학생뿐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 성적인 농담이 즐겁지 않은 강의실

수업시간에 (특히 남성)강의자들은 소위, 수업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성과 관련된 이야기나 성적 농담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강의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남학생들은 그런 농담들에 즐겁게 반응하며 웃음소리를 내는 반면, 많은 여학생들은 오히려 불쾌해하고 그 강의자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성적인 농담은 여성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을 성적인 관계에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보며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보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를테면, 여성의 얼굴이나 몸매, 등에 대해서 단지 남성의 성적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꼭 여성 비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성적 농담이나 이야기들도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은연중에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야한 이야기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마치 남성들만이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우리끼리는 안다는 듯의 눈빛을 교환하며 그들만이 '관계'를 다지곤 하는 가운데, 여학생들은 어느 곳에도 속해 있기 어려운 불편한 자리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시간에 특히, 남성 교수가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학생들만을 청자로 가정한 것이라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런 이야기를 듣고 폭소를 터뜨릴 수 있는 '하락된' 성은 일차적으로 남성이며, 여성들이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농담을 듣고 즐기는 것은 불건전한, 즉 '허락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된다. 그 속에서 여학생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로 위치지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수업 중에 성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강의의 주제상 그러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수업 자체가 성적인 주제로 이어가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성적인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상황에서 느껴질 수 있는 여러 맥락을 고려하면서, 교수들은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학생들을 배제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혹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은 되어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을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발언

강의자들은 수업 시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척을 하며 가부장적 사고를 권고하러 하는 발언들을 비판없이 하고 있다. 남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게 편하고 여성들은 다리를 오므리고 앉는 게 편한 이유는 신체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남성이 더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고 여성은 감수성이 풍부하다' 남자가 운동능력이 없고 정자만 운동한다는 사실이 남녀의 전통적 생활모습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등의 명제는 곧 경제활동, 학문 등에 유리한 남성, 예술, 가사, 양육 등에 적합한 여성이라는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사회성원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과학으로 인식하며 성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비판 없이 과학적인 명제인양 남발할 때에는 그 현상을 당연시 하도록 만들어 성차별적 의식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남성 중심적인 언어

남성 중심적인 언어란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 낯선 분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남성

만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시일 수 있다. 스포츠나 군대에 관련된 용어나 예시는 일부 여성들에게 낯설 수 있음에도 아무런 고려없이 쓰이고 있고, 동시에 남성들만이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단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창녀라는 단어는 성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문란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이고, 그러한 여성상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성욕이나 취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부장적 남녀관계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부장제는 '정상적인' 남녀관계 속에 정숙한 여성이 될 '정상적인'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구별 짓게 한다. '창녀'라는 이미지로써 여성과 어머니를 통제하고, 남성들에게는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가부장제의 이중성이 성매매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성매매여성들은 단지, '행위자'라는 이유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강의 중 언어 성폭력 문제를 표면으로 드러내기 위한 노력

강의중 언어 성폭력의 문제를 언어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명명하기 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의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여러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지에서 묻혀질 수 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이제는 표면으로 드러내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성폭력 없는 강의실 문화 만들기

☹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웃고 동조하는 반응, 혹은 그에 문제제기 하는 상황에 대해 회화화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언어적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웃는다는 것은 그 발언을 한 사람의 말

에 동의한다는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진정으로 동감하고 동의해서 폭소를 터뜨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 역시 언어 성폭력에 일조하는 가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아이 없는 듯)웃는 것은 마치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한 사람을 회화화하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반응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을 사람의 용기와 의지를 꺾는 것이다.

☹ 교수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나, 무조건 추종적인 교수-학생의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강의 중 학문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은근슬쩍 한 말일지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러한 언어적 성폭력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그리고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범절에 어긋난 행위 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배움과 알의 길을 모색하는 강의자라면, 학생들의 그러한 지적을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게 불쾌한 요소들을 없애고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결국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이다.

☹ 성적인 비하나, 성 차별적인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은 우리가 가진 당연한 권리잖아요

내가 선택한 교수라고 해서 여성을, 곧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그냥 넘기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내가 선택한 수업은 나의 전공지식과 교양지식을 기르기 위함이지 그런 발언까지 허락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그런게 뭐에 안들으면 안들으면 되지 않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강의자의 언어적 성폭력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나의 수업권이 박탈된다면 어이없는 일일 것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수업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선택의 몫을 남기는 것이 혹자의 그런 발언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방법보다, 강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하여 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은 자명하다.

제도적인 요구인

● 강의 평가 및 교수 평가 항목에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을 묻는 항목 추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양질의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강의 평가 및 교수 평가 항목에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을 묻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런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강사는 책임임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며, 많은 학우들의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됨이 없다면 그것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교측에서도 무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강사에게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여 의도치 않게 학생들에게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의 중 언어 성폭력은 여학우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언어적 습관이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교강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자연스럽게 인정해온' 그러한 발언들이 사실은 듣는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며,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언행에 대해 교강사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반성폭력 학칙에 있어 교수 성폭력에 관한 특별항목 추가 요구

실제로 교수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료 교수와 학교 교직원으로 이루어졌다면 객관적인 사건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반성폭력 학칙에 있어 대책위를 꾸리는 것과 관련하여,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학생대표의 인원수를 더 늘리는 등의 특별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이 학기 중에 일어났을 때는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해 교수가 아닌 다른 선생님을 통해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 여성학 연계전공 수업 보완 및 증설 / 여성주의 관점 및 젠더인식적 관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수업 증설

우리는 20년 넘는 시간동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안에서 살아왔다. 교수와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또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므로 여성학 과목이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대해 좀더 민감하고 풍부하게 인지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 평등적 인식을 가진 교강사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언어적 성폭력의 근절'이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지리라 믿는다.

●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필수 이수 과목군 내에 성평등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 신설

현재 우리학교는 전공을 받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양 과목들이 있다. 여/남이 함께하는 사회를 살기 위해, -특히, 여·남이 절대 평등하게 존립할 수 없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견고한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다른 어떤 교육들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떤 학생이 강의 도중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지적하였을때, 교수에 의한 적힘①보다, 사실은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주변 학생들의 반응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평등 감수성을 위한 필수 교양 과목들을 통하여,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오랜 세월이 걸쳐 존재해온 불평등 인식들을 하나씩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듣고 함께 공감하며 지지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교강사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형성해 갈수 있도록 말이다.

by_ 언어 해남



그녀들에겐 너무 아박한 성균관!



여러분 안녕 우리는 마나와 핑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너무나 화창한 5월 넷째주지? 어느새 우리 학교 캠퍼스도 나무들은 새초롬하게 초록으로 변해있고, 금잔디는 한껏 무성해져 있는 게 벌써 초여름이 온 것만 같아. 아까 전에 학교 올라오는데 땅이 송송 나기까지 했대. 근데 오늘 우리가 짙은 치마랑 하이힐을 신고 학교에 왔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학교 올라오는 길이 힘든 거야? 핑아나 숙웃이 보이지 않을까 가파른 길에서는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고 심지어 수선관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하이힐을 신으니까 너무나 발이 아픈가봐 왜 이렇게 우리 학교는 가파른 곳이 많은지.....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하루였다구. ㅠ.ㅠ 알아 나온 길에 우리 함께 학교에서 그녀들에겐 너무 아박하게 구는 공간을 찾아보는건 어때? 다시 말해 여성 배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찾아보는거지 정문부터 시작해서 수선관 끝까지 학내 살살이 뒤질 거니까 한눈팔지 말고 잘 따라와야해 ^^ 자~ 시작해보자

by_ 마나, 핑

같은 길거리인데 왜 우리가 담배를 피면 왜 시선이 사나울까?

핑: 마나~ 여학우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실외에서는 그다지 많이 못본 것 같아 특히 학교 정문에서 남학우의 흡연 모습은 많이 봤는데 여학우의 흡연 모습은 보지 못했어. 이는 흡연자의 여남 비율의 차이보다는 그보다는 오픈된 공간에서 여남간의 흡연 인식의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한 사실같아.

마나: 응 맞아. 우리 사회는 오픈된 공간에서 여성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 여성이 흡연하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 것이고, 동시에 임신할 해야 할 예비 어머니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뿐만 아니라 흡연은 남성의 전유물이기때 여성 흡연은 남성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겨지기도 해.

핑: 맞아. 여성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어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 어서 빨리 여성의 흡연 공간이 보장되어야 할 터인데 물론 그 전에 사회에서 여성 흡연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면 더 없이 좋을거야!



치마를 입을 날에는 뱅글뱅글 학창을 돌면서 가야한다구!

마나: 옛 핑 오늘 치마 입었네? 아침에 도서관에 자리는 잘 말았어?

핑: 마나~ ㅠ.ㅠ 육백주년 기념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그 길 있지? 나 그 길 치마 입고 올라가는데 완전 식은땀 흘리느라 혼났어. 가방으로 뒤에 가리고 올라가도 너무 가팔라서 숙웃 보일까봐 얼마나 신경 쓰였대구...

마나: 옛 나도 며칠 전에 치마입고 그 길 가려다가 그냥 한참 돌아서 도서관 갔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는 경사진 공간이 참 많은 것 같아. 가끔은 치마를 입고 싶어도 입기 망설이지까지 한다니까.

핑: 맞아. 그런데 더 아이없는 건 뭔지 알아? 그렇게 신경 쓰이면 치마를 안 입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 문제는 현재 여성 배제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이런 공간은 비단 가파른 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더 찾아볼까?



우리 몸엔 딱지 없는 책상! 허리가 아프요!



평 : 마나! 너 오늘 3시간짜리 수업 2개 있는 날이지?

마나 : 응! 예전처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평은 수업 듣다보면 허리 아프지 않아? 우리 책상상이 붙어 있어서 의자에 엉덩이를 반만 걸쳐서 수업 듣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평 : 옛! 나도 수업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불안인데... 우리 학교 책상상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마나 : 분명 여학생, 남학생 모두가 함께 수업을 받을 때도 불구하고 남학생 기준으로 책상상을 만들 수 가 있는지... 회가 난다. 필기를 하려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의자 끝에 걸쳐 앉아 있어. 그러다 보면 수업 자세도 안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구.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학교는 알까 몰라

평 : 마나! 알아도 모든 책 할잖? ㅋㅋ

여학생휴게실, 공간 줘서 할 일 다할래!

마나 : 평! 나 오늘 경재관 지하 1층에 있는 여학생휴게실이라 여휴에 처음 가봤는데 수면실에는 밝은 조명이 비치지고 있었고, 심지어 수면실 바로 옆에 칸막이만 쳐서 있고 세마나실이 있는 거 있지?

평 : 그래도 거간 벽대 여휴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야. 벽대 여휴(지소담)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고 심지어 여휴 안에는 책상하고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

마나 : 정말 너무나한 거 아니? 여휴는 단순히 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내 공간이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여성은 소외되어 불만함이 존재하기에 있는 거라고

평 : 맞아!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공간만 마련해 주면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얼마나 속상했대. 특히 벽대 여휴 같은 경우 얼마나 관리가 소홀했으면 남학생들도 들어온다는 일도 들리잖아! 단순히 학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여휴 공간 제공은 우리도 싫어

마나 : 학교는 여휴가 여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도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평 : 아까전에 강의 들으러 수선관 올라가면서 운동장을 봤는데 여자는 한명도 없더라?

마나 : 진짜? 요즘에 날씨 따뜻해져서 운동장에서 사람들 무지 많던데 여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하긴! 나도 자리에 보니까 농구 코트에도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

평 : 운동장을 보다보면 가끔씩 나도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 졸업한 후로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기억이 전혀 없어. 지금 우리 학교에는 고등학교 때 보다 훨씬 넓은 운동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저 곳은 나에게 너무나 낯선 곳이야

마나 : 니 역시 운동장과 농구코트는 낯선 장소야. 사실 여자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해. 현재 운동장과 농구코트는 남성들의 전유물

이야. 여성들이 그곳에서 뛰어 노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지

평 : 가끔씩 운동장에서 발아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친구들이랑 야구장도 하고 싶은데, 왜 여성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 안되는 거지?

마나 : 언젠가 보던 사회적으로 보통 여자들은 뛰어노는 것 보다 안전하게 앉아서 놀기를 기대 받았어.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아이들은 밖에 나가 활발하게 뛰어 노는 것을 좋게 여기고, 이와는 반대로 여자 아이들은 인형 놀이를 하거나 집에서 조용하게 놀기를 원하지

평 : 정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어이없다...

내려갈 때마다 문밖에서야 비 - 하이힐 신고 수선관 내려가기

평 : 1학년 때 선배들이 일부러라도 수선관 수업은 시간표 팔 때 빼라고 하던데 나는 좀 다른 의미에서 수선관 수업이 꺼려져

마나 : 보통 수선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싫어하는거잖아. 평은 왜 싫은데?

평 : 하이힐 신고 날에 수선관 내려 와봤어? 정말로 큰 맘 먹고 내려가야 할 정도로 몸의 무게가 모두 발 끝에 실려 얼마나 발이 아프다구

마나 : 아! 나도 그래! 평! 나 어떤 학기에 수선관 수업 받았어. 계속 오 프라내리락 하다 보면 급기가 저네에는 발이 통통 부어 있어.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언덕이 많아서 하이힐 신고 내려 갈때 엄청 힘들어. 한쪽편에서 내려가야 해. 그렇게 하면 발이 조금이나마 덜 아프니까

평 : 이거는 원 학교 다니는게 아니라 무슨 동산 코스 여행견습이라니까! 이후~ 신경질 나



喜怒哀樂 '애'

2006 여성현실제

- 나의 몸 사랑하기 - 내 몸 사랑 프로젝트
- 나와 연애하기 - 사랑해 날래 ^^
- 남성과 사랑하기 - 남성과의 연애,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하여
- 여성과 사랑하기 - 단편 영화 상영전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

나의 몸 사랑하기

내 몸 사랑 프로젝트!



1. 첫경험(?)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 나를 공부
를 한다고 입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생리를 할 때 유난히 생리통이 심했
어. 하지만 뭐 생리통쯤이야 좀 심할 수도 있지 하며 넘겼어. 그런데 생리
가 끝난 지 1주일 밖에는 안 된 것 같은데 또 생리를 하는 거야. 어라?! 이
상하네... 하며 또 그냥 넘겼지. 그런데 생리 끝나고 1주일 정도 후에 또 생
리를 하네! 정말 막 당황스럽고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엄마께
말했어. 나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생리를 했을 때도 그다지 당황하지 않
고 침착하게 엄마께 "엄마 나 생리해요."라고 말했던 순진한 아이였어. 그
래서 뭐 이번에도 순진한 나는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지. 뭐 내 이야기
를 조금 들더니 배에다가 이상한 초록 크림을 바르더니 두꺼운 주걱 같은
것을 배에다 문지르더니, 그냥 생리 불순이라네. 그러고는 주사를 놓아주
고는 약을 좀 주었지. 내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 산부인
과는 엄마랑 함께 가는 곳이거나.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잠자면 시집못가
는 줄 알았을 때니까. 그리고 산부인과는 에 낳으러 가는 곳만은 아니구나.

2 궁금한 내 몸

산부인과에 예 날으려만 가는 곳이 아니라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 그렇다고 결혼도 안한 내가 산부인과에 감기나 폐탈로 병원에 가듯이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 혼자 가는 건 부끄럽고, 남자친구랑 가는 것은 더 위축되고, 그렇다고 엄마랑 가지니까 성경함이 있는데... 진료 받을 때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 당연히 생리 중 생리통이 아무리 심해도 생리를 3달 동안 한번도 안 해도 질 외음부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가려워도 산부인과의 문턱을 넘는다라는 것은 웬지 모르게 불편하고 껴림칙해.

그러던 어느 날, 가슴이 철렁하는 사건이 벌어졌어. 대학교 1학년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 종합 병원에 입원한 어느 겨울 날,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치질 검사를 한다며 바지를 내리라는 거야.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끔찍했어. 그래서 막 노발대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자 선생님이로 바

꿔달라고 했지. 겨우 여자 선생님 앞에서 바지를 내렸지. 근데 선생님이 내 질 외음부가 처졌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왕지사 입원한거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라는 거야. 겁이 덜컥 났어. 나보고 의사가 얼마 있는데서 "성경함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아까 여자 의사로 바꿔달라고 오두방정을 뿜었던 것도 잊고는 겨우 겨우 받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갔어. 하지만 이 찝찝한 마음이란...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기분 나쁜 생리통, 거무죽죽한 생리혈, 불명확한 생리주기, 가려움, 불결한 냄새, 심한 냉 등, 내 몸에 대해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도 병원에 가는 것은 웬지 모르게 위축되고, 부담스럽고, 비밀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가 이리 찝찝한 걸까?

3. 왜 이렇게 내 몸이 부끄러운 거야?!

여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 해. 아이를 가져야 할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당당하게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 소중한 몸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거야.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남자들이 자신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여자들의 성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성적 쾌락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들의 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불경한 것으로 여겨, 여성의 생식이나 질환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터부시 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또 남성들이 여



좋은 질병이라도 있다고 하면 의료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의사들에게 바란다. 내 몸에 대해 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저 환자로만 보는 권위적인 태도를, 적어도 내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성

Illustration by 김민

성의 재생산 능력을 경외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여성의 생식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불경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설도 있어. 하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밝혀낸다 하더라도 이 '부끄럽고 불경스러움'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차치하자.

4. 당당한 몸 사랑을 시작하자

이랬든 여성 질환의 불경스러움이 여성의 몸통제와 매우 밀접한 것은 사실인 듯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산부인과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야.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배독이나 매질 등과 같은) 성인 질환이나 여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을 수도 있어. 그런데 미혼 혹은 비혼 여성들은 산부인과 병원에 갈 때 혹시 나를 성인 질환에 걸린 사람이나 임신한 여자로 보면 어쩌나 하는 불편한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일면 사실이야. 유독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이지. 미혼 혹은 비혼인 임신한 여자가 성인 질환에 걸린 여자는 문란한 여자로 치부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나만 아니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불결한 여자로 본다는 것은 그다지 기분이 유쾌한 일은 아니지.

또 불편한 것은 의료보험이야. 의료보험 처리가 되면 의료비는 절약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내가 산부인과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뭔가 찝찝하고 만약 내게 안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여성이 되자. 내 소중한 몸의 일부인 자궁과 그와 관련된 질병과 건강들, 당당하게 자신의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몸 사랑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by_ 해오름



나와 연애하기

사랑해 날래 ^ ^

미안해, 날래

안녕 아침 햇살이 따듯한 창가에 앉아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너를 만나려고 해 이제 널 만나려고, 널 알아보려고 온전히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네 여태껏 나는, 사회에서 규정짓는 여성으로 한 가족의 첫째 딸로 그리고 누군가의 여자친구로, 성균관대 학생으로서 너를 만나 있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너는 나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온전히 너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

밤에 달콤하고 맛있는 군것질 하면서 책읽기를 좋아하는 너에게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 미안해 평소 잠이 많아 잠만보라고 까지 불리며 침대 속에서 텅골거리며 자는 거 좋아하는 너에게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 미안해 빔보게 먹으면 살찌잖아 아침에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 화장도 해야 하고, 사회에서 규정지어진 예쁘고 날씬한 여성이 되기 위해 난 무단히도 노력했나봐 너의 즐거움도 잊은 채

첫째 딸인 너 부모님의 기대와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속에 있는 너에게 항상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늘 단하였었어 난 네가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싶은 자유를 생각해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 많이 겪어보면서 사회 곳곳을 바라보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어서 공부해서 취업도 해야 하고, 고등학생인 동생들 공부하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든든하고 바람직한 첫째 딸이 되어야하니 정색대로 공부하고, 좋은 남편감 만나 결혼하기까지 난 어쩌면 부모님의 기대를 넘어 스스로 그렇게 되리라 여겨왔는지도 몰라 널 그런 틀 안에 묶어둔 거 미안해 네가 원하는 너의 모습도 잊은 채

얼마 전 홍여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혹시 반지라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없다고 얘기하면서 쳐다봤는데 내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혹시 누구 여자친구 아니세요? 라고 묻더라 그래서 처음엔 신기하고 원지 좋은 느낌으로 맞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내 이름도 묻지 않고 어떤지 많이 본 것 같더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더라고 처음엔 널 알아봐주어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그 사람들에게 난 누구 여자친구일 뿐이었지 내가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사글은 생각이 들어 너 그 아이의 여자친구로 전부 표현할 수 있는데

혼자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네가 좋아하는 웃도 구경하고 산책도 보다가 문

득 그 아이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을 보면 사려고 땀해두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선물하고 싶고 우울한 기분엔 한참 빠져있다가도 군대에서 온 전화를 받을 때만큼은 웃어 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굶고나서 후회하고 미안해하던 너,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항상 기대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네게 너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너만의 시간 빼앗은 거 미안해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더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널 너무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려는 아이로 만들었나봐 깨끗하고 멋진 너의 모습도 잊은 채

반가워, 날래,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참 행복해

이제 너를 온전히 사랑할거야 네가 좋아하는 것들, 네가 하고 싶었던 것들, 스스로 느끼고 싶어 했던 것들 생각해봐 생각나지 않은 것들도 많을 거야 여태껏 너를 위한 온전한 시간들이 없었으니까

아침엔 잘 수 있는 만큼 살갓 지고 일어나는 거야 목 지고 일어나 기지개를 펴는 너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

샤워를 하려고 들어간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작지만 귀엽고 앙증맞은 눈,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짧은 파마 머리, 코진 않지만 예쁘게 볼륨이 나온 가슴, 나를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통통한 다리까지 너의 모습은 멋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할게 누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화장이 아니고, 너를 잘 표현해주는 스스로 기본 중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거야 너만의 개성으로, 매일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 이제 이런 화장법도 익숙해지겠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너의 생각을 규정짓지 말자 너는 22살이잖아 취업준비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생각해봐 심리 공부도 좋아, 강의실에서만 말고, 많이 접하고 체험해 보자 도서관에 가면, 무궁무진하잖아 그동안 도서관에는 너무 과제하기 위해 갔을걸 하루 종일 쫓아 앉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볼 수 있는 책도 골라

보는 거야 재밌겠지? 사회 곳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나 인위하게 살았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치 보지 말고,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맘껏 얘기하자 위촉 되지 말고, 이제 내가 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여"

손톱에 예쁜 네일아트를 했어 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웬지 이 돈이면, 남자친구 휴가 나올 때 더 맛있는 밥을 먹으려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공부하는 동생 문제집 두 권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일아트를 하고 나니 날아갈 것 같아, 손에 닿는 물건들도 다 예뻐지는 것 같고, 잘 한 거야 너의 일상에 활력이 되었잖아, 이제 이렇게 너에게 활력을 주는 많은 것을 찾아보자 맛있는 한 잔의 커피도, 뉴에이지 음악도,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야

너만의 기념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오늘 내가 너를 온전히 생각해 본 첫날이니, 아날을 기념하며, 사랑을 시작한 첫날로 만드는 거야 우리 기념일들은 온통 관계에서 온것들이잖아, 축하 받을 일들은 온통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남자친구와의 기념일 크면 결혼, 결혼기념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생일, 돌잔치 등, 주위 사람들은 온전히 나를 축하 하는 게 아닌걸 나를 위한 기념일을 만들어, 아날만큼은 나를 위해 향기로운 꽃 한다 발을 시도 좋겠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좋겠고,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는 거야 관계에서의 축하가 아닌 나와 사랑하게 된 걸 축하한다는 의미의 축하,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인걸?

점점 내가 더 익숙하고 좋아지겠지?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해결하려던 문제도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 나갈 수 있을 거야

악숙하게 이제 너와의 사랑에 무심하지 않겠다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원하는 일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날래, 사랑해"

by_ 날래



여성 의료 상담

나의 몸을 사랑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 멀게만 느껴지는 산부인과가 학교로 찾아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출입은 사회적 압박감과 편견으로
인하여 그리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생리불순이나 출혈, 아랫배 통증, 심한 생리통 등 평소에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었던 나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나의 몸을 잘 이해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메이 산부인과의
고경실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일 시 :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장 소 : 학생회관 4층 여학생 휴게실 안 미팅룸

-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미리 접수를 해 주세요! (회갑하나 : 011-9761-5750)
- 당일 접수도 환영합니다.

〈고경실 원장님〉

학 력	경 력
서울의대 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수련
서울의대 대학원 예방의학과 석사	서울시 신천연합의원 산부인과 과장
독일 뒤셀도르프 의대 박사	독일 도르트문트대 연구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의대 부교수
	현 메이산부인과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장

남성과의 연애,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하여

이성애 이데올로기... 그리고 남성과의 사랑

우리는 '사랑'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성애'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어린 시절 접하게 되는 동화와 만화영화에서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광고 심지어는 가요에 이르기까지 사랑이야기가 빠지는 곳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매개물을 통해 남녀의 만남과 서로에 대한 이끌림에 대해 수도 없이 학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마치 인간의 자심목표가 '이성과의 사랑'이고,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완성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물론 '사랑'이 아름다운 현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것이 오직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야기만을 담고 있어서 이성애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과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성 역할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너무나 충실해서 가부장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수많은 사랑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착하며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과 독립적이고 용감하여 능동적인 남성의 모습을 각각 이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것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보다 우월하거나, 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도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성과 사랑을 대하는 남녀의 태도는 결코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데이트에 있어서 남녀의 권력관계

우리가 사랑에 대해 배우게 된 매개물들은 성 평등적이지 않고,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성 역할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성 역할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누구와 데이트를 할 것인가부터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사랑하기





연애상대나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더 높은지 더 능력이 있는지, 직장이 더 좋은지, 직위가 더 높은지, 돈을 더 잘 벌는지 할 것을 기대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하도못해 여자보다 나이라도 더 많거나 키라도 좀 더 크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기대는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해야 하므로 돈이나 권력 또는 능력 면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거나 월등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남성 상위의 지배적 관계는 상대방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적용한다. 이는 흔히 '연하'라 일컫는 경우, 즉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남성이 연상인 경우 여성은 상대방 남성을 '오피'라 칭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만 여성이 연상인 경우 남성은 상대방 여성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붙이는 데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남성은 나이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연애상대여성에게 상위호칭을 호명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다. 이런 현상 또한 여·남간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좋아하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여성은 '여성다움'을 남성은 '남성다움'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고, 이를 준비하면 여성은 자신의 의사표현 없이 수동적으로 남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트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데이트 전에 옷을 고르고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는 등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답한 반면, 남성들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돈을 찾고, 데이트 코스와 장소들을 물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답변하였다. 즉, 여성은 '침자는 숲 속의 공주' 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남성이 데이트 코스부터 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와서 함께 데이트를 즐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성 역할의 강요는 양성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 남성과의 연애에 있어 이런 수동성을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의 욕망 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 남성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의존적 상황을 보이게 된다. 한편 남성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

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상대방 여성에게 초기에는 만족감을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무엇인가 이끌어주고 결정해 줘야 하는 귀찮은 존재물로 여기기 마련이다. 평등하지 못한 관계는 언젠가 그렇듯이 지배하고 종속 당하는 관계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여·남 모두에게 상처만 주게 된다.

성적 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 부재

사랑을 하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만지고 싶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몸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상대 남성의 뜻대로 결정되게 된다. 나는 아직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어느 순간 섹스까지 요구한다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의 강압때리고 협박하는 것만이 강제는 아니다. 내가 싫은 기색을 내보일 때 물러나지 않고 '너 나 안 사랑하지?' 또는 '나 못 믿어?'와 같은 말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 역시 강제라고 압박이다.) 예 못 이겨서 섹스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특히 스캔들의 문제는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녀의 권력관계특히 경제력에 의한 종속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스캔들과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즉, 아무리 연인사이라고 할지라도 동의 없는 스캔들은 성폭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키스할 때 동의를 구하는 남자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내 몸이고, 그가 내 몸에 손을 대면서 허락을 구한다는 데 왜 싫은 걸까? 그것은 여성들 스스로 여성은 성에 대해 무지하고, 수동적이어야 하며, 모든 스캔들 심지어 손잡는 것까지도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시고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손잡어도 되?', '키스해도 되?', '섹스해도 되?' 라는 질문에 여성들은 싫어도 'NO'라고 대답 할 수도, 좋아도 'YES'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과의 스캔들 문제에 있어 어려모로 고통을 받게 된다. 정말 스캔들이 하기 싫은 상황에서 거부감을 표현한 상대방 남성은 '난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난 널 사랑하지 않아?'와 같은 그럴싸한 협박조의 말로 여성을 회유하려 든다. 이런 남성의 회유에도 재차 거부할 경우 여성은 남성에게 '난 사랑하지 않는 여자'로 오인되거나 자나치게 까탈스러운 여성으로 비춰지게 된

남성과
사랑하기



남성과의 연애,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하여



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손을 댈 때 항상 우리가 묻는 것처럼 (핸드폰 써도 돼?, 펜 좀 써도 돼?)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댈 때에도 항상 내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 내가 동의한 후에 스캔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상식이다.

한편 여성들은 자신의 솔직한 성적욕망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흔히 자신의 성적욕망에 대해 솔직한 여성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수식어들이 붙여지곤 한다. 이 때문에 여성들을 남성과의 성적 관계에 있어 스스로 원하는 것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행여 내 남자친구가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지는 않을까?'와 같은 우려가 여성을 더욱더 성적 행위에 움츠러들도록 만든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문화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지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한다. 또한 여성에게 성적 욕망이 없다 혹은 있더라도 남성보다 덜 하더라는 편견으로 이를 유지, 존속시킨다. 앞서 살펴본 두 경우와 같이 여성에게는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 그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와 키스/섹스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까칠스럽고 감박증이 있는 여성으로, 또한 '나는 너와 키스/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해본 여자'로 매도하여 끊임 없이 여성을 성적행위의 객체에 머물게끔 강요한다.

흔히 '데이트 성폭력'으로 일컬어지는 일들도 이러한 맥락과 전혀 다르지 않다. 즉,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을 총칭하며 특히 나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강압에 떠밀려서 섹스를 하게 된 경우를 일컫는다. 폭력이란 내 의사에 반하여 내 몸이나 내 소유물에 위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성폭력은 이러한 폭력이 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뚜렷한 자기 의사를 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필요하다.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에 대한 소유권, 선택권까지 넘겨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어디까지나 성폭력일 뿐이지 애정의 표시가 될 수 없다. 남성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사회·문화적 압력에 눌려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노예와 같은 상태로 뇌두는 것과 같다. 그런 관계가 실고, 더 이상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싫다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과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의 첫 걸음은 모든 데이트 상황특히 스캔들 관계에서 내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데이트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더 종속적인 관계로 고착시킬 뿐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한다. 남성에게 내 몸의 주인은 나이고,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성적으로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며,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몸에 대한 나의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자.

보다 평등한 여·남과의 관계 지향을 위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남간의 연애에는 엄연히 사회적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남성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평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는 결국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형태로 귀결된다. 또한 그가 내 동의 없이 손잡고 키스하는 것을 - 내가 그와 손잡고 키스하고, 섹스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남성은 여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여성이 동의한 가운데 스캔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그냥 빙치하는 것 역시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 남성 임의대로 섹스를 하고, 그 후에 '사랑해서 그랬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정말로 여성을 사랑한다면 여성의 몸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 여성의 성적욕망을 사회적 편견으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려는 남성들의 태도 역시 필요하다.

연애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고 평등한 하나의



남성과의 연애,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하여

남성과
사랑하기



남성과
사랑하기



주제로 다시 서려면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나'를 되돌아 봐야 한다. 그 동안 자신이 좋은 남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예를 들어 자신보다 뛰어난 경제적 요건, 학벌, 외모, 명예 등이 오히려 여·남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우리 스스로는 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며, 데이트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스캔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 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양성에게 미치는 가부장적인 종적 질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가부장제는 모든 인간을 성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모든 여성에게는 일괄적인 '여성다움'을 모든 남성에게는 일괄적인 '남성다움'을 강요하여 개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마치 태초에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여성과 남성은 달랐던 것처럼 생각 할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가부장적 종적 질서가 여·남간 연애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많은 없다. 현실이 불평등하다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실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불평등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양성에게 모두 요구되는 사항이다. 기존의 가부장적 성 역할의 규정에 의해 피해 받고 있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가부장적인 문화에 갇혀져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화가 얼마나 양성 불평등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불평등을 직시했다면 다음은 바꾸어 나갈 차례이다.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유로운 자신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길 때 양성 모두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by.. 아물, 마니

단편 영화 상영전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



땡땡 (Ddingdong)

한국 | 2005 | 8분 | DV 6mm | 코메디

감독 | 사모, 피끼, 치치

작품소개

땡땡! 효진을 처음 보자마자 정은의 마음에 별이 따구 울린다. 땡땡, 땡땡, 땡땡!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정은은 채팅 친구인 제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과연 정은은 효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잡아내는 표현력과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순화정)

감독소개

사모, 피끼, 치치

다이크 영상집단 '다이크' (Dykes on Focus 'Dylo')

멤버

'그녀를 사랑하는 그녀'



이반검열 1 (Lesbian Censorship in School 1)

한국 | 2005 | 27분 | Beta | 다큐멘터리

감독 | 여성영상집단 움

작품소개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 또는 동성애자인 것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일명 '이반검열'을 해서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고, 머리가 짧거나 손만 잡아도 제재를 가하고, 스캔들에 따라 발정을 매겨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부당함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반검열 1>은 우리사회의 호모포비아를 해치는 <이반검열 프로젝트>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작품소개

여성영상집단 움 Feminist Video Activism WOM

2001년 결성된 여성영상집단 움(WOM)은 '영상을 통한 여성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영상운동단체이다. 움(WOM)은 WOMAN의 남성중심성을 뒤집어 여성주의로 재해석한 주제적인 여성을 의미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영상선언>(2001)을 시작으로 <성매매를 금하라>(2002) <거북이 시스템>(2003) <여성매매>(2004) 등의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 가운데 <거북이 시스템>은 제1회 서울여성영화제 여성신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서울여성영화제 홈페이지 WWW.WFFIS.ORG.KR

● 번외편 감독 | 모기

너무나~ 너무나~ 판타스틱하고 감미롭고 달콤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신선한 흥재 기대하세요. 그 어디서도 보지 못한 리얼로 망소킹로맨스 영상이 클로징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두르세요!^^

시간 | 늦은 6시 반
장소 | 추후공지 예정



喜怒哀樂 '락' 2006 여성현실제

- 강의 중 언어 성폭력 존극
- 축제를 마무리하며... 다들 사랑해!

강의중 언어성폭력 존극



어두운 무대위로 살짝 조명이 비추면 주인공 등장한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 주인공은 손에 든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한다.

인연 : 교수님께... 정말 참다참다 안되겠기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라도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수님은 계속 모르실테니까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불쾌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테니깐요. 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 이상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업을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들어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힘들게 공부해서 온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이런것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감정에 짜증나고 화남, 그리고 내가 여자라서 그렇지... 하는 자책까지... 정말 말로는 다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가 저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다시 꺼지고 교수 학생들 등장한다.

교수 : 이번 수업에는 유난히 여학생들이 많군... 여기가 여대인가? 하하하 (어색하게 웃는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한테 지지 않도록 분발 해야겠어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죠... 거기 이쁜 여학생~~ 얼굴도 이쁘데 글도 아주 잘 읽게 생겼네... 한 번 읽어봐요.

(이 때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의 시선이 그 여학생의 얼굴에 향한다.)

학생 1 : 자...저요? (주춤 주춤 일어나서 뽀뽀한 듯 책을 읽기 시작한다) 내용 정해서 넣기

교수 : 학생 고향이 어디인가?

학생1 : 자...저 울산인데요.

교수 : 오~ 그런데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는군... 여성이 이렇게 표준어에 빨리 적응 하는건 신문 상술을 위해서 시집을 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면적으로 있어서 그런거라고 하네... 역시 여자는 시집을 잘 가면 땡이지 마... 사회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자가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시집 잘 가서 애만 잘 키우면되지 마... 자! 나중에 아이 얼마 될 사람들 잘~ 들어요~ (교수의 말이 끝난 뒤 무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 행동을 정지 한다.)

모두가 정지한 무대에서 주인공 혼자 일어나 독백을 한다.

인연 : 난 시집 잘 가려고 대학에 온 것도 아는데...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는데... 왜 맨날 여자를 보는 기준은 외모여야 하지? 이렇게 당연한 건가? 나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해 대학에 왔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건가? 휴~ (하소연 하듯 대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앉는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멈춰있던 것을 그만둔다.)

교수 : 어 거기 남학생? 몇 학년인가?

학생2 : 네! 4학년입니다.

교수 : 군대는 다녀왔는가?





학생 2: 네!

교수: 어디로 갔다왔는가?

학생 2: 1군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교수: 오~ 그러군... 군대 좋은데 나왔는데... (전체 학생에게 하는 말)
이 학생이 말아야 할 곳은 기업으로 따지자면 이사회나 주주
총회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지, 거의 핵심이나 군사 기밀들이
많은 곳이야.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니까, 저 학
생 저 능글한 것 좀 봐봐

학생 2: 하하 감사합니다.

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 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말이지...

(교수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집중을 하고 있다. 주인공 혼자
생각에 잠기며 노트를 고적이며 독백한다.)

인연: 꼭 저런 예를 들어야 하나? 난 군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
는데... 군대에서 대해서 모르는 나 같은 사람들은 수업을 이해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군대에 갔다온게 무슨 그리 큰 일
이라고 그렇게까지 치켜 세우지? 휴~~ 다른 아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예민한거겠지? 참아야겠다 ㅠ.ㅠ

교수: 자 여기 양주병이 있어요. 술이 반 정도가 차 있는 양주병을 보
고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님 반 밖
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양주병을 보고 반이나 남았
네 라고 한 사고는 긍정적인 사고로 남성적인 사고이고, 반밖
에 안 남았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로 여성적인 사고입
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겠지요?

인연: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짜증나고 불편해... 교수님한테 이견
아니라고 이야기 해 볼까? 아니야... 그러면 학점이 안나올게 뻔

할텐데... 어차피 이런 수업 듣기도 짜증나는게 그깟 학점 좀 안
나오면 어때? 그냥 말 할까? 아니야... 그럼 다른 애들이 날 머라
고 생각하겠어. 혼자 예민해서 설친다고 하겠지? 그냥 좀 넘어가
면 안되겠냐고... 아 아 아 어떻게하지? 어떻게 하지? 왜 내가 수
업 시간에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거야. 왜냐 ㅠ.ㅠ
(주인공 결심한 듯 의지를 다지며 손을 든다.)

인연: 저... 교수님...

교수: 음~ 그래 지기 여학생 왜그러냐?

인연: 교수님 수업 시간 처음부터 이야기 하신 말씀은 모두 성차별
적인 말씀으로 듣기가 거북합니다. 다시는 이런 말씀 안해주셨
으면 좋겠는데요.

(주위 학생들 모두 주인공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학생 1: 꼭 저런 애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려요... 아씨 짜증나
게 왜 저러는 거야

교수: 아니...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느꼈나요? 거 학생 참
맹랑하네... 학번하고 이름 좀 불러봐 (화가난 듯 이
야기 한다.)

학생 2: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교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주위의 사선을 이기지 못해 주인공 더 이상 어
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힘없이 자리에 앉는다. 다른 학생들은
웅성웅성 가리고 주인공은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는다.
교수와 학생은 수업을 하고 있고 주인공 혼자 독백한다.)

인연: 역시 괜히 말했나봐~ 교수님께 내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도 어
렵지만 주위 학생들의 반응이 이렇 줄 정말 몰랐어~ 힘들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하지? (이런 상태로 무대 조명이 점점 꺼지
고 다른 등장인물 모두 퇴장한다. 주인공 앞으로 나와 계속 편지
를 읽는다.)





인연 :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는 교수님이 하시는 사소한 말씀에도 무력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번 수업 시간인가 한국의 저출산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 하시면서도 왜 그게 전부 여성의 탓으로 돌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요즘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적어도 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여학생들 알겠냐며 대답까지 이끌어 내셨죠... 왜 교수님은 여학생은 모두 아이를 낳는 대상으로 보고 우리의 진로나 고민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시죠? 또 강의실에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근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나 예를 들때 꼭 외모적인 것이나 성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제가 이상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논리적인 말로 나의 감정을 잘 설명하지 못해도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결코 단순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점 때문에, 교수 학생이라는 권력관계 때문에 모두들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저 말고 다른 학생들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한 그게 저 혼자만의 감정이라고 해도 그게 역시 보호 받아야 하니까요... 교수님, 저 역시 교수님의 풍부한 지식과 학문을 배우려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제발 더 이상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상처받지 않도록, 또 수업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 자유로운 영혼 고승은 총여에 발목잡히다??

아름 색다른 일도 경험해보고 친한 친구들이 중요한 형사한테서 도와줄 건 시작했는데 할일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많이 도와주지도 못한 것 같아 미안하네요. 다시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ㄱ

언어 연작가 연담장 연감독 언배우... 난 멀티플레이어 ㅋㅋ 다들 수고했어~ 오래도록 남을 여현제가 될 거 같아 ^^ 나에게 힘이 돼주는 여러분 모두 사랑해♡

평권 요새 힘들어하는 나에게 일상 다 빈사... 평

해날 불편함을 자각하는 것이 싫어서 애써 무시했었던 -그녀들의 우리들의 나와- 일상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

하나 늘 부족한 것은 - 시간, 마음의 여유, 예산 보다 부자란함, 더 많은 호응과 지지, 정서정돈에의 의지와 능력 '외부' 혹은 '그들'이라 통칭되는 무리들의 협조, 체력, 섬의 기술, 내 고민, 무한히 자유로운 소통, 순간의 판



Illustration by www.magiccup.co.kr

축제를
마무리하며...
다들 사랑했어!

단력과 같은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우는 '너' 혹은 '우리'라 부르는 당신들의 페너지! 이것은 후기지만 후기가 아니라, 여성주의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니까 '0' (+ bandits 카피밴드)에 대한 로망은 아직 죽지 않았다 ㅋㅋㅋ

마나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명심하셈 ㅎ

해오름 나쁜한 오후갈던 내 학교생활에 상용하고 발칙한 바람이 되어준 여현제~♡ 앞으로도 발칙한 나의 대학 생활을 위하여 아자아자 땀!

날래 내 일상도 모두 반사해버리고 올인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나를 사랑하게 된 좋은 게기였어- 멋지게도 자유로운 22살 날래 화이팅! 우리 발칙한 사람들도 파이팅!

신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이름까지... 하지만 여현제를 준비하면서 함께 한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었어. 단지 그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 식상한 일이지만 정말로 이번 여현제로 해서 일화성의 행사로만 그치는게 아닌, 매일매일 여성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지? 적어도 한시 적으로 여현제 기획단으로써 발빠부터 여현제가 끝난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는 나로만ㅋㅋㅋ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로 즐거웠고 다들 고생했어~ 모두들 사랑해♡

박하 총여방의 빨간 커피가 기분 나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숙연 액션 년들이 있을 거라 했다.

'총여는 이상한 여들이야'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나 총연대'란 말에 가우뚱한다.

지금껏 인사를 타왔던 여자, 그 여자는 이상한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한때는 초라하다고도 생각했고 욕을 먹어도 끊임없이 일을 벌이는 총여

이래할 수 없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낳을지 모른 채로,

나는 평가자로 서있을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앗 그런데 그녀들 또 움직인다! 진짜 놀라게 움직여온다.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그녀의 일상대변사를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여성이 일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나쳐 버리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여성이 또 여성과 함께 사있는 남성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 마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참여자가 아닌 여전히 조금 떨어져 지켜본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역센 년도 참 아름답더라는 것, 그것

— 박하 그리고 엄초롱



Illustration by minobon
(www.minobon.co.kr)

제 13회 여성현실제
그녀의 일상 다 반사!!